인천섬발전지원센터

폭풍의 언덕에서 히스클리프를 만나다

인천 섬 발전지원센터 소식지
2025 봄 호



굴업도 특집
섬 산행 베스트4
섬 백패킹 베스트4

IIDSC CONTENTS

03 여는 글 **살고 싶은 섬 마을, 함께 만드는 인천**
04 굴업도 특집: 여행기 **혼자 황홀하여 미안하다**
05 굴업도 특집: 이해준 이장 인터뷰 **"연평산 가보세요. 굴업도 다 볼 수 있어요"**
06 굴업도 특집: 우리 함께 지켜요 **"대소변과 쓰레기가 문제라고요?"**
07 굴업도 특집: 트레킹 교과서 **내비게이션 필요 없는 코스 안내**
08 굴업도 특집 : 경치 명소 TOP7 **"우와! 여기 한국 맞나요"**
09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사용 설명서
10 섬 산행 BEST4 **백아도, 대청도, 문갑도, 덕적도**
11 섬 해변 백패킹 BEST4 **덕적도, 주문도, 시도, 자월도**
12 인천 토박이 꿀팁 **1,500원으로 떠나는 인천 보물 섬 여행 인천i-바다패스, 섬 연결 여행 섬섬옥수**
13 인천 섬 소식 **작지 않은 보물섬 소이작도, 굴업도 직항선 취항, 소청도 3월 섬 선정**
14 인천 섬 발전지원센터 소식 **권역별 섬 교류 협력 세미나**
15 인천 섬 여행에 유용한 사이트 **인천 섬 발전지원센터, 인천 섬 포털**
16 여객선 이용 안내



살고 싶은 섬 마을, 함께 만드는 인천

<인천 섬 소식지>는 계절과 테마별로 떠나는 인천 섬 여행을 주제로 올해 4번 발간됩니다. 봄-트레킹, 여름-바캉스, 가을-페스티벌, 겨울-선셋·선라이즈 등 흥미로운 콘텐츠를 담았습니다.
2020년 3월,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조례」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우리 센터는 '살고 싶은 섬 마을, 함께 만드는 인천'이라는 비전 아래, 섬 지역 역량 강화와 사업 지원, 섬 자료 아카이브 구축과 관리, 섬 네트워크와 교류·협력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섬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인천에는 168개 섬이 있으며, 그중 유인도 40개를 보유한 지역으로 섬마다 고유한 역사와 문화,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보존하고 섬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모든 인천시민이 시내버스 요금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인천 아이(i)바다패스' 사업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민은 시내버스 요금인 1,500원(편도)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중 1박 이상 체류하는 타 시도민은 기존 지원율 50%에서 70%로 확대 적용받아 정규운임의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인천 아이(i)바다패스' 사업을 통해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인천 섬을 방문해 섬에 활력이 되살아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인천광역시 섬 발전지원센터는 섬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섬 발전지원센터장 김태후





혼자 황홀하여 미안하다

글 신준범 월간山 기자 | 사진 게티이미지

있다가 없어지는, 투명한 섬

스리슬쩍 몸을 낮춰 둥실둥실 떠다닌다. 굴업도 말이다. 주변 섬은 몸을 곧추 세워 존재감을 과시하려 드는데, 굴업도는 낮고 부드러운 굴곡이다. 해무가 조금만 짙은 날이면 바다에 묻혀 섬이 사라진다.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지 않는 부드럽고 투명한, 혼자서도 행복이 차오르는 법을 아는 섬을 만났다.

개머리언덕에서 만난 히스클리프

능선을 올라서자 19세기 영국 북부 요크셔로 바뀌었다.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수크령 초원, 한국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낯선 땅이었다. 거센 바람과 안개가 깔린 황량하고 아름다운 언덕 어딘가에서 사랑과 질투, 복수심으로 가득찬 남자 히스클리프가 나올 것 같았다. 에밀리 브론테의 소설 <폭풍의 언덕>의 한 장면이었다.

수크령 능선의 꽃사슴

백패커들의 알록달록한 텐트가 수크령 초원과 잘 어울렸다. 간간이 꽃사슴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습은 비현실적이었다. 망망대해를 향해 순응하며 가라앉는 둥근 산등성이. 도시와의 연결고리를 끊어 놓으려 작정한 풍경이었다. 캠핑 의자 펴 놓고 앉아 있노라면, 속에 쌓인 감정들이 모락모락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만 같았다. 10분 정도 앉아 있은 것 같은데, 1시간이 지나 있었다.

기묘한 해변, 목기미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묘한 해변이다. 목기미해변은 미인의 목선처럼 가늘고, 길고, 희다. 양쪽으로 파도가 밀려오는데, 만조에도 잠기지 않는다. 지금은 폐건물 흔적만 남았으나 과거 작은 마을이 있었다. 아이들 웃음소리를 추억하는 전봇대가 골격만 남아 세월을 삼키고 있었다.

연평산에서 본 굴업도, 결코 잊을 수 없는

덕물산과 연평산을 오르면 굴업도의 다른 매력을 만난다. 100m 대라고 얕보면 후회하는 공룡등골 같은 능선이 험상궂게 이어진다. 험준하지만 짧은 산길을 오르면 각각의 정상에서 새로운 굴업도를 발견한다. 부드러움과 강함이 공존하는 자연의 조화에 입이 딱 벌어지는 건, 누구나 겪는 과정. 네팔 히말라야, 유럽 알프스, 일본 북알프스도 좋지만 인천에서 3시간이면 닿는 섬 산꼭대기에서 본 경치는 나만 알고 싶은 비밀이다. 굴업도 여행자 9할이 오지 않는 산정에서 혼자 황홀하여, 그대에게 미안하다.

"연평산에 가보세요. 굴업도 다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많이 오는 이유가 뭐냐고요? 여기보다 아름다운 곳은 없잖아요. 굴업도보다 좋은 곳은 없어요. 초원 멋있고, 산 멋있고, 바다도 예뻐요. 저도 육지에서 살아보고, 좋다는 곳 다 가봤지만, 굴업도만큼 아름다운 곳은 없었어요."

굴업도 큰마을해변에 가면 '다잇소'가 있다. 도시의 프렌차이즈 매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이름처럼 여행객과 백패커가 찾는 모든 걸 갖추었다. 해변의 작은 카페이자 매점인 것. 여백의 미(美)로 넘치는 넓은 해변에 재즈나 옛날 팝송이 흘러나오며 묘한 조화를 이룬다. 음악 선곡, 안내, 계산까지 모두 이해준 이장이 도맡아 한다.



굴업도 선착장에 내리면 큰마을까지 차로 태워 주고, 산길이며 화장실 물어보는 사람들 귀찮아하지 않고 답해 주고, 매점 운영과 마을의 크고 작은 일까지 도맡아한다. '미스터 굴업도'인 셈이다. 굴업도가 고향인 그의 다섯 형제가 모두 섬으로 돌아와 살고 있다.

2000년쯤 국내 대기업에서 굴업도의 경치에 반해 땅을 사들였는데, 유일하게 팔지 않은 주민이 이 이장의 부친이었다. 고향을 지키고자 했던 고집이 세월이 흘러 가족들을 섬에 불러들인 셈이다. 부친의 선견지명 덕분에 합법적인 숙박업과 요식업을 할 수 있게 된 것.

지금은 한 마을 11가구 25명의 주민이 있지만 그가 어릴 적에는 마을이 두 곳이었고, 주민도 60여 명이나 되었다. 예나 지금이나 좋은 점은 고기가 잘 잡힌다는 것. 민어, 우럭, 장어, 농어, 광어, 도다리, 놀래미까지 여간한 것은 다 나온다고 한다.

숙박비는 숙소마다 차이가 있지만 식사는 백반 1인당 1만2,000원으로 같다. 해산물을 제외한 식재료를 대부분 육지에서 구입해 와야 하는 걸 감안하면 비싼 편은 아니라고 한다. 농사 짓기 어렵고, 고사리 이외 나물이 나오지 않는 것은 사슴 탓이다. 사슴은 여행객에게는 명물이지만, 주민들에게는 "아주 지긋지긋한 존재"로 낙인 찍혔다. 천적이 없다 보니 개체수가 늘어서 400여 마리에 이르는데, 풀을 다 뜯어먹는 통에 섬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것. 풀잎만 먹는 것이 아니라 뿌리까지 먹는 통에 초본류가 자라기 어렵고 어린 나무가 자라기 어렵다는 것. 다만 고사리만 먹지 않아서 밥상에 반찬으로 올라오고, 작은 밭을 일궈도 그물로 촘촘하게 주변을 막아야 한다. 때문에 "사슴 숫자를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소연한다. 사슴은 과거 한 주민이 키우던 것으로 추측하는데, 관리하던 주민들이 고령화되거나 도시로 나가고 야생화되었다.

굴업도 마을에는 봄을 맞아 공사를 하는 집들이 보인다. 본격적으로 여행객들이 몰리기 전 공사를 하는데, 육지에 비해 비용이 무조건 두 배가 든다. 모든 자재와 인부들까지 육지에서 와야 해서 그렇다. 물과 전기도 무척 부족한 걸 감안하면, 숙박비가 비싼 것은 아니라는 설명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장에게 굴업도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물었다.

"연평산이오. 개머리언덕에 가면 바다밖에 안 보이지만, 연평산에 가면 굴업도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요. 기막힌 경치를 볼 수 있어요."

그는 배가 들어오면, 항상 차를 몰고 나가 손님을 태우고 온다. 식사와 숙박을 예약한 손님만 태우냐고 묻자 "차에 자리만 있으면 다 태워요. 어쨌든 우리 섬 찾아온 손님이잖아요"라고 웃으며 말하는 이해준 이장이다.





“대소변과 쓰레기가 문제라고요?”



공공 화장실은 선착장과 큰마을해변에 있다. 개머리언덕의 수크령 초원은 캠핑을 즐기는 이들로 주말이면 많은 이들이 찾는다. 국내 대기업에서 땅을 소유하고 있기에 지자체에서 임의로 화장실을 지을 수 없고, 마을에서 떨어진 섬 반도 끝이라 현실적으로 짓기도 어렵다. 많은 백패커들은 소사나무 숲에 들어가 ‘근심’을 해결한다. 때문에 이것이 굴업도의 환경 문제로 늘 지적 받는다.

이해준 이장:
문제될 것 없다. 백패커는 봄과 가을에만 몰린다. 개머리언덕이 굴곡진 형태라 비가 오면 다 쓸려 내려간다. 비수기인 여름과 겨울에 대부분의 대소변은 사라진다. 여러분도 개머리언덕을 다녀오지 않았나? 무슨 냄새가 나던가? 의외로 순환이 잘 이뤄지고 있다.

백패커 A씨:
휴대용 배변봉투를 가져와야 한다. 당연한 일인데, 아직 우리나라 백패킹 문화가 미흡한 면이 있다. 배변봉투에 담아와서 직접 가지고 나가야 한다. 인터넷에서 응고제가 포함된 배변봉투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 현지 주민과 환경을 배려해야 한다.

백패커 B씨:
땅을 파서 배변 후 흙으로 잘 덮으면 된다. 미국도 백패킹 시 깊이 20cm 이상 땅을 파서 배변을 하고, 덮는 걸 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물티슈다. 썩지 않는 물티슈를 숲에 버리는데, 휴지나 물티슈는 비닐에 밀봉해서 되가져가야 한다.

주민 K씨:
정작 심각한 건 쓰레기 문제다. 백패커들이 개머리언덕에서 내려와서 큰마을해변에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 분리수거장이 있지만, 분리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비닐봉투째 버리고 간다. 더 큰 문제는 섬 내 쓰레기장이다. 쓰레기가 많이 차면 냄새가 고약하고, 여러 문제가 생긴다.
1년에 두 번 쓰레기를 수거하는 배가 오는데, 시기가 맞지 않다. 봄·가을에 방문객이 많으니, 6월과 11월에 오면 좋은데 한창 비수기에 온다.

내비게이션 필요 없는 트레킹 코스 안내



개머리언덕 가는 법

-큰마을해변 기점: 해변 서쪽 끝으로 가면 철조망을 지나 오르는 산길이 있다. 비탈을 따라 250m 오르면 시야가 트인 수크령 초원 능선에 닿는다. 여기서 1.2km 가면 개머리언덕이다. 큰마을해변에서 1.5km이며 40분 정도면 닿는다. 116m봉우리를 지나면 개머리언덕인데, 봉우리를 직등해서 넘는 길과 우회해서 가는 길로 나뉜다. 우회하는 길이 더 완만하지만, 직등 코스도 어렵지는 않다.

-마을 기점: 숙이네펜션 뒤쪽으로 오르면 산길이 임도처럼 넓어지고, 통신탑이 있는 봉우리에 닿는다. 여기서 능선을 따라 가면 개머리언덕에 닿는다. 통신탑 봉우리에서 종주하면, 마을과 해변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다. 마을에서 개머리언덕까지 2.5km 거리이며 1시간 정도 걸린다.

덕물산 가는 법

-목기미해변을 가로질러 폐 초소가 있는 안부(고개)로 올라서서 오른쪽 능선을 따라가면 덕물산 입구에 닿는다. 산길이 희미해지기도 하지만 능선이 선명해 길찾기는 어렵지 않다. 슬랩 바윗길에서는 왼쪽 흙길로 최대한 올랐다가 바위로 올라서면 안전하다. 선착장에서 덕물산 정상까지 2.3km이며 1시간 정도 걸린다.

연평산 가는 법

-시멘트 폐 초소가 있는 고개까지 가는 것은 덕물산과 같다. 고개에서 북쪽으로 능선을 따라 1km 가면 정상이다. 모래 사구가 있는 곳에서는 산길이 사라지기도 하는데 정상을 바라보며 능선을 따르면 다시 산길이 나타나고, 단단한 흙이 나온다. 사구를 올라서는 20m 구간이 조금 힘들 수 있다. 정상 직전 나오는 바윗길은 멀리서 보면 험해 보이지만 주의해서 오르면 어렵지 않다. 하산 시 썰물이라면, 사구에서 코끼리바위를 거쳐 해변을 가로질러 오는 것이 알찬 여행법.



우와! 여기 한국 맞나요?

빠뜨리면 후회할 굴업도 경치 명소 7곳















4개의 출입문이 있다. 1~2게이트는 정문이고, 3게이트는 주차장에서 가까운 옆문이다. 임시주차장 출입문은 본 주차장이 만차일 경우 세우는 임시주차장 쪽 출구다. 몇 번 게이트로 들어가는지를 알면, 효율적인 동선으로 이동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최단거리 동선

① 매표소 앞에 줄 선다. 기다리는 동안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꺼낸다.
* 매표소 줄이 길다면 무인발권기 이용.
② 매표소 옆 3번 게이트 부근에서 배 탑승구로 나간다. 신분증과 승선표 확인 후 통과 가능.
③ 배까지 가는 길을 안내하는 안내원들이 목적지에 따라 타야 할 배를 알려 준다.
④ 배 탑승. 승무원에게 신분증과 승선표를 보여 줘야 배에 탈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 멀미약 구입. 배 멀미를 한다면, 약국에서 멀미약을 구입한다. 2번 게이트 옆 CU편의점과 나란히 있다. 편도 2회분(왕복) 6,000원.
√ 화장실은 양방향 끝에 각각 있다. 가까운 화장실을 이용한다.
√ 2층에 쾌적한 고객 라운지가 있다. 시간 여유가 있다면 2층에서 기다리면 쾌적하다.
√ 카페 아메리카노 작은 컵은 3,500원. 큰 컵은 4,500원.
√ 분식집은 김밥(4,000원), 라면(5,000원), 우동(7,000원), 짜장면(7,000원), 짜장밥(7,000원)만 판다.
√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을 경우 3번 게이트 옆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본 발급 가능.
√ 2번 게이트에 스마트폰 무료 충전 기계가 있다. 20대까지 동시에 가능하다.
√ 출차 시 주차요금 모바일 정산 가능하며, 무인정산 기계가 있다.
√ 약국 옆에 물품보관함이 있다. 대형 보관함과 소형 보관함이 있어 캐리어나 큰 배낭도 보관 가능하다.







독서의 바다를 무료로 항해하는 법

- 2층 고객 라운지에는 무료로 대여 가능한 '옹진 스마트 도서관'이 있다. 신분증만 있다면 누구나 무료로 책을 빌릴 수 있는 무인 대여 자판기다.
-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1인 두 권까지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14일. 반납은 반드시 이곳 스마트도서관에서만 가능하다.





백아도 남봉 144m

- **배편**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오전 9시 출항. 3시간 20분 소요.
- **코스** 선착장~봉화대~공용기지국~당산~남봉~남봉 입구 도로~보건소마을(도로)~선착장
- **설명** 선착장 택배보관소 옆 등산로 입구에서 산행 시작, 남봉까지 능선 종주. 선착장 돌아갈 때 도로 따라 가면 시간 단축.
- **거리 & 소요 시간** 10km, 5시간 소요.
  선착장~남봉까지 5.5km(산길)
- **명소** 전망바위, 남봉 공룡능선, 보건소해변
- **매력** 설악산 공룡능선 축소판 '남봉 공룡능선'의 화려함.



대청도 삼각산 343m

- **배편**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1일 2회(08:30, 12:30) 출항. 약 4시간 소요.
- **코스** 매바위전망대~삼각산 정상~광난두정자~서풍받이~마당바위~광난두정자
- **설명** 선착장에서 매바위전망대까지 차량 이동, 하산 후 광난두정자에서 숙소 또는 선착장까지 차량 이동
- **거리 & 소요 시간** 6km, 4시간 소요.
- **명소** 매바위전망대, 정상, 광난두정자, 서풍받이
- **매력** 거대 예술작품 같은 서풍받이와 흥미로운 삼각산 산행



문갑도 깃대봉 276m

- **배편**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오전 9시 출항. 4시간 30분 소요.
- **코스** 선착장~어루재~호망재~깃대봉~진고개~한월리해수욕장~선착장
- **설명** 선착장에서 출발해 깃대봉 정상을 거쳐, 선착장으로 돌아오는 원점회귀 산행. 여름에는 가시덤불 높아 둘레길 사라지므로, 등산로만 이용할 것.
- **거리 & 소요 시간** 6km, 3시간 30분
- **명소** 깃대봉 정상, 처녀바위, 한월리해변
- **매력** 때 묻지 않은 섬의 시원한 경치와 보석 같은 한월리해변.



덕적도 비조봉 292m

- 배편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1일 3회(08:00, 08:30, 14:30) 출항. 쾌속선 1시간 10분 소요. 차도선 1시간 50분 소요
- **코스** 진리성당~망재~비조봉~서포리해수욕장
- **설명** 선착장에서 도로 따라 2km 가면 등산로 입구 진리성당에 닿는다. 정상에서 능선 따라 서쪽으로 가면 서포리로 곧장 하산하는 코스보다 경치 더 화려해.
- **거리 & 소요 시간** 4km, 3시간(선착장~진리성당 찻길 구간 제외)
- **명소** 깃대봉 정상 팔각정, 서릉 전망데크, 서포리해변.
- **매력** 덕적군도 대장섬 최고 전망대의 위용.



❶ 덕적도 밧지름해변

배편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1일 3회(08:00, 08:30, 14:30) 출항. 쾌속선 1시간 10분 소요. 차도선 1시간 50분 소요

추천 백패킹 장소 밧지름해수욕장.

선착장에서 가는 방법 선착장에서 찻길따라 3km 걸어 가면 50분 만에 닿는다. 선착장에서 서포리해수욕장행 마을버스를 타면 밧지름해변까지 10분 만에 닿는다.

화장실 유무 최근에 지은 화장실이 있다.

식당 & 편의점 해변 부근에는 없다. 선착장의 하나로마트와 식당 이용.

이용료 여름 성수기에만 징수.

매력 도시인의 지친 마음 위로하는 정갈한 해변과 소나무 방풍림.



❷ 주문도 대빈창해수욕장

배편 강화도 선수선착장. 1일 3회(07:30, 13:00, 16:30) 운항. 40분 소요. 삼보해운 홈페이지 참조.

추천 백패킹 장소 대빈창해수욕장.

선착장에서 가는 방법 살곶이선착장에서 찻길로 5km, 서쪽 해안선 도보 4km

화장실 유무: 있음

편의점 및 식당 유무 해변 부근 없음. 1km 거리 느리선착장에 식당 겸 슈퍼.

이용료: 소나무숲 노지 야영. 여름 성수기에만 징수.

매력 노을빛이 고운 알려지지 않은 고요한 해변.



❸ 시도 수기해수욕장

배편 영종도 삼목여객터미널, 1시간 간격 운항. 10분 소요(연륙교 2025년 완공 예정).

추천 백패킹 장소 수기해수욕장

선착장에서 가는 방법 신도~시도~모도는 연도교로 연결되어 있어 신도선착장에서 1시간에 한 대씩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간다. 찻길따라 걸어가면 5km 1시간 10분 정도 걸린다.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승용차를 배에 싣고 가는 것도 효율적이다.

화장실 유무 있음 **편의점 및 식당 유무** 있음

이용료 해변 그늘막 아래 야영. 여름 성수기에만 징수.

매력 마니산 능선이 보이는 넓은 해변과 쾌적한 편의 시설.



❹ 자월도 장골해수욕장

배편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1일 3회(07:50, 08:30, 12:00) 운항. 쾌속선 이용 시 50분 소요.

추천 백패킹 장소 장골해수욕장

가는 길 선착장에서 도로 따라 1km 가면 닿는다.

화장실 유무 있음

편의점 및 식당 유무 있음

이용료 해변 소나무 그늘 아래 야영. 여름 성수기에만 징수.

매력 배 타고 50분이면 먼 섬에 온 것 같은 색다른 기분 즐길 수 있다.

1,500원으로 떠나는 인천 보물 섬 여행
인천 i 바다패스
모르면 나만 손해?



√ 인천 i바다패스란?

- 여객선을 시내버스처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최초 여객선 대중교통화'** 사업.
- 인천시민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 초과하는 뱃삯 전액 지원.
- 타지역 시·도민 연간 3회 70% 할인.
- 인천 섬 활성화하고, 여행객 유입 확대의 초석.



√ 깜짝 놀랄 뱃삯

- 인천 시민 편도 **1,500원**
- 타 시·도민 정규 운임의 70% 지원
  (평일 1박 이상 머물 경우, 1인당 연 3회, 주말 제외, 일요일 입도 할인 지원, 여름 성수기 제외, 뱃삯 1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

√ 지원 대상 섬

옹진군 굴업도, 덕적도, 소야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문갑도, 백아도, 지도, 울도, 자월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 신도, 장봉도

강화군 주문도, 불음도, 아차도, 미법도, 서검도

고운 여인 손길 같은 섬 연결 여행! 섬섬옥수



√ 굴업도만 아름다운 건 아니었구나

굴업도에서 여행객이 우르르 내리면 해누리호 객실은 고요해집니다. 백아도, 지도, 울도, 문갑도에서는 사계절 내내 고요함을 곁들인 평화가 제철입니다. 굴업도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은 백아도 남봉 공룡능선, 그 다음은 문갑도 한월리해변에서 하염없이 수평선 감상하고, 지도에서는 월척으로 손맛 즐기고, 울도에서는 당산 등대에 올라 운해에 근심 흘려보내노라면, "굴업도만 아름다운 건 아니었구나"라고 혼잣말을 하고 있을 겁니다.



√ 소연평도, 잘생긴 남자의 편지

대연평도 구리동해수욕장에서 몽돌 소리를 듣고, 망향전망대에서 북쪽 능선 실컷 본 뒤에 그냥 가지 말고, 나를 찾아주오. 나는 소연평도의 얼굴바위라오. 오똑한 콧날, 바다를 응시하는 눈매, 나는 남자 옆 모습을 쏙 빼닮은 얼굴바위요. 산책로를 따라 해안선을 걸어 내게로 와주오.

결코 작지 않은 보물섬, 소이작도

인천 섬 특성화 사업 통해, 방문객 두 배 이상 늘어나

소이작도는 2018년 3단계 '섬 특성화 사업'을 통해 섬 주민들로 구성된 '소이작도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했다. 그 이후 7년 동안 섬 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과 주민소득 사업 발굴을 진행했다. 그 결과 방문객은 2018년 8,278명에서 2023년 1만8,322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4단계 사업 기간(2023~2024년) 중에는 다방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섬 특성화 사업의 모범 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섬 특성화사업 4단계가 마무리된 지금, 앞으로도 소이작도는 지속가능한 자립마을로서 다방면에서 노력할 계획이다.

쉬었다 가세요! 여행자센터

1층 카페, 2층 복합공간으로 구성된 소이작도 여행자센터는 관광객들에게 여행정보를 제공하고, 특산물과 기념품을 판매한다. 특히 4단계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며 '보물섬 에이드' 메뉴 개발과 '감성 피크닉 세트' 대여 사업을 통해 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했다.



보물섬 에이드

풍경 예술적으로 살린, 포토스팟

독특하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예술적으로 살린 '해변 경관 그네'와 섬을 도형과 색채로 표현한 약 359m의 '금은보화 월파벽'은 소이작도의 대표적인 기념사진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해변 경관 그네

그래 이 맛이야 '꽃게품은 육수한알'

소이작도 특산물을 활용해 개발한 코인육수 '소이작도 꽃게품은 육수한알'은 기존 카페 운영에만 의존하던 주민들의 수익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코인형 육수 한 알을 끓는 물에 넣기만 하면 진한 육수가 조리된다. 특히 맛이 일품이라 재구매율이 높다. 소이작도 여행자센터에서 코인육수 1병(65정) 1만5,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꽃게품은 육수한알

짬짜면 같은 걷기길 '소이작도 갯티길'

소이작도에는 5가지 갯티길 코스가 있다. 특히 2024년 6월 갯티길 트레킹 코스를 활용해 주민들과 함께 준비한 '제1회 해작해작 갯티길 산책' 행사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짬뽕과 짜장면을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짬짜면'처럼 산과 바다를 동시에 즐기는 걷기길로 각광 받고 있다.



갯티길이 경유하는 약진넘어 해수욕장

굴업도 직항 여객선 취항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과 문갑도·지도·울도·백아도·굴업도 5개 섬을 오가는 차도선 해누리호(487톤)가 2024년 11월 말 첫 운항에 나섰다. 옹진군 덕적도 인근 5개 섬을 인천에서 직항하는 여객선이 생긴 것.

인천~굴업도(왕복 169㎞) 노선은 홀수일(인천→문갑도→지도→울도→백아도→굴업도→ 문갑도→인천)과 짝수일(인천→문갑도→굴업도→백아도→울도→지도→문갑도→인천)로 나눠 매일 1회 운항한다.



소청도 3월 '이달의 섬' 선정

옹진군 소청도가 한국섬진흥원에서 매월 발표하는 3월 '이달의 섬'에 선정되었다. 소청도는 현재 2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작은 섬이다. 섬 규모는 작지만 8억 년에 이르는 지질 역사를 품고 있다. 특히 백령 대청 국가지질공원에 속하는 소청도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8억 년 전 활동의 흔적 발견)을 비롯해 독특한 해안지형을 간직하고 있어 '살아 있는 지질박물관'으로도 불린다.



2025년 권역별 섬 교류 협력 세미나 참석

인천·전남·경남 섬 간 협력 강화



인천 섬 발전지원센터는 지난 2월 19일 한국섬진흥원에서 개최한 '섬 교류협력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인천·전남·경남 섬 발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사업 확대 방안 논의'**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인천 섬 발전지원센터, 한국섬진흥원, 전남 섬 발전지원센터, 경남 어촌발전과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 섬 발전지원센터

인천 섬 발전지원센터는 '섬 주민 역량 강화 교육' 운영, 지역 '상생 캠프' 운영 내실화, 섬 포럼·간담회·사진전 개최를 협력 사업으로 제안했다.

한국섬진흥원

한국섬진흥원 교류협력팀은 '찾아가는 섬 현장 포럼' 운영 협조, '공동 사회 공헌 사업' 추진을 제안했고, 홍보팀은 취재 협조와 공동 필진 구성, '찾아가고 싶은 섬' 사업 협조를 제안했다. 교육운영팀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섬 인식 개선 교육 특강' 운영을 위한 협조 방안을 논의하고, 전라남도의 '섬 코디네이터 양성교육' 관련 자문을 요청했다.

전남 섬 발전지원센터

전남 섬 발전지원센터는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과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 '이달의 섬 웹매거진' 등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기관별 협업 가능성을 논의했다.

경남 어촌발전과

경남 어촌발전과는 섬의 고유 자원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특화섬(테마섬)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섬택근무(워케이션) 사업'을 소개하며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섬 발전 위한 워킹그룹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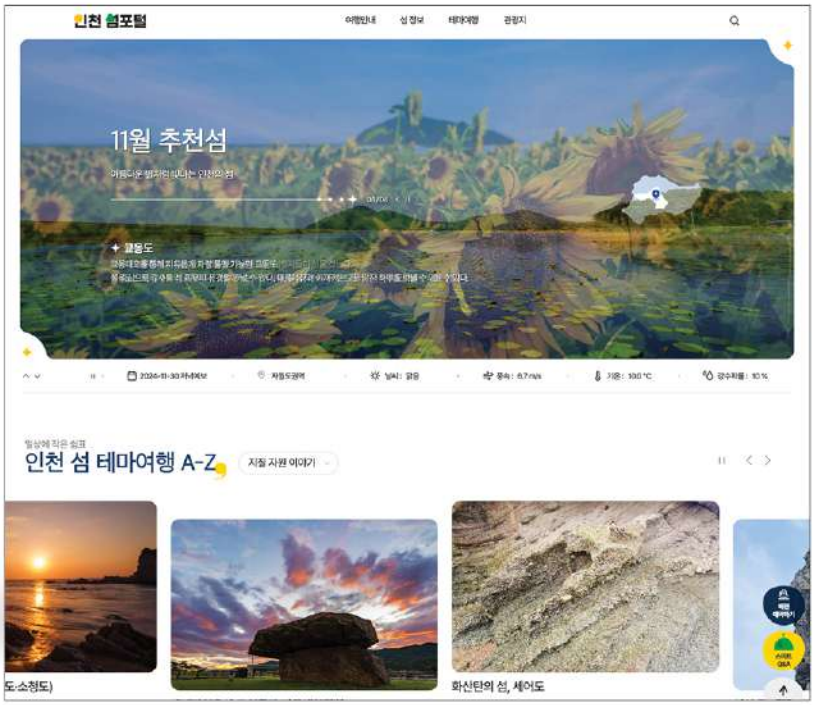
이날 세미나에서는 사회공헌활동과 교육·홍보사업을 담당할 실무협의체 '워킹그룹'을 새롭게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워킹그룹은 권역별 섬 교류·발전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사회공헌과 교육·홍보사업을 검토한다. 아울러 국내 섬 발전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 섬발전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인천 섬 정보
https://www.iisland.or.kr





인천 섬 포털에서 제공하는 섬 정보
https://isum.incheon.go.kr/index.do

여객선 이용 안내 >>

▶ 승선권 구입

- 출항 25일 전부터 출항 전일까지 예매 가능하며, 출항 시각 1시간 전까지 승선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승선을 위해 출항 1시간 전까지 해당 매표소에 도착해 승선 절차를 진행하고, 출항 10분 전까지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KSA 여객선 예매 사이트



모바일 앱



승선권 자동 발매기



여객터미널 내 매표소 창구

※ KSA 여객선 예매 사이트 오픈

'가보고 싶은 섬' 사이트는 2025년 3월 31일부로 종료되며, 2025년 4월 1일부터 KSA 여객선 예매 사이트로 통합됩니다.

▶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❶ 승선권 구입 및 여객선 승선 시 **신분증**을 꼭 제시해 주세요.

❷ **차량 선적 시 운전자만 탑승**하고, 나머지 일행은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주세요.
차량 선적 후 운전자는 **시동을 끄고 안전한 객실**로 이동해 주세요.

❸ 과도한 음주나 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를 벌이거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하면 안 돼요.

❹ 차량·화물 고박(차량이나 화물 고정 작업)이 완료된 이후 배가 출항할 수 있습니다. 고박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❺ 선내 안전수칙 및 비상 시 행동요령을 시청해 주세요.

▶ 행선지별 선착장

인천항 연안여객선터미널: 덕적도, 자월도, 승봉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굴업도, 문갑도, 백아도, 지도, 울도, 연평도, 소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영종도 삼목여객터미널: 장봉도, 신시모도(신도·시도·모도 연도교 연결되어 있음)

강화도 선수선착장: 볼음도, 아차도, 주문도

석모도 하리선착장: 미법도, 서검도



발행 인천광역시 섬 발전지원센터 | **제작** 월간山 신준범 | **디자인** 박준현 | **인쇄** 032디자인